

지역 최초 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성과

광주시의회 2015년 결산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는 27일 오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의정방향을 함께 발표했다.

조영표 의장은 이날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최초 인사청문회 실시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다.

시의회는 올 한해 131일 회기 동안 조례안 223건, 예산·결산안 16건, 동의·승인안 39건 등 총 34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조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일자리 조례 등 340건 처리

KTX 서대전역 경유 철회

의원 연구모임 2개 결성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 86건은 시의원들이 직접 발의했으며,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의 62건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광주시와 교육청 등 8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513건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93건 ▲긴급현안질문 7건 ▲5분 자유발언 28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올 한해 시의회의 역할 중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지역 최초 광주시 산하기관 공

기업 대표 인사청문회였다.

공공기관의 혁신과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하고 세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지역 내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았다.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막기 위해 전남·북 의회와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집회 및 항의방문 활동 등을 집중 전개해 정부의 계획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아울러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발전거버넌스연구회, 의정혁신연구회 등 2개의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해 일곱 차례 운영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광주시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당면한 지역 현안인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효과 극대화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등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광주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조 의장은 “내년에는 광주 미래가 걸린 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의회 모바일 인터넷방송 실시, 지역현안 정책분석평가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병세 “청구권협정 입장 변화 없다”

日 ‘법적 해결’ 주장 반박... 위안부 해결 외교장관 오늘 담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28일)이 오늘 진행된다.

한일 양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개최, 외교수장 간 담판을 위한 실무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번 담판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나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결과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담판을 하루 앞둔 27일 일본을 겨냥해 강한 경고를 메시지를 날렸다. 위안부 갈등의 근본 배후를 가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는 곧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는 위안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고리다. 이 문제가 풀려야 아베 총리의 사죄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나머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윤 장관은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기초의원 새정치 탈당 기자회견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이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탈당기자회견엔 이선순 동구의회 의장과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위안부 소녀상 이전” 日 정부 언론플레이에 분노

지역시민단체 ‘해남나비’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있는 ‘해남나비’는 27일 “일본이 돈 몇 푼으로 사죄도 없이 협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한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고, 전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해남나비는 해남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인 공점업(95) 할머니를 2년 넘게 돕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다. 광주·전남에는 공 할머니와 함께 곶내(90·담양) 할머니만이 생존해 있다.

해남나비 이명숙 대표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소녀상 이전은 일본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언론 플레이로 보이기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소녀상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인권유린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께서 증언자로 살아있음에도 일본 정부의 망발이 이어지는데, 앞으로 10~20년 뒤에는 일본 정부가 어떤 일들을 행할지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8년까지 뿌리기업 700개, 생산액 14조 달성”

광주시, 융접·금형 등 활성화 발전계획 확정

광주시가 2016년을 자동차, 광산업 등의 근간인 뿌리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삼는다.

광주시는 최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기 경제부시장)를 열고 뿌리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18년까지 뿌리기업 규모를 700개 이상, 생산액은 14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뿌리기업은 2013년 기준 557개, 총 생산액은 11조원이다.

이 종합 계획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올 초부터 기획 연구과제로 추진해왔다.

뿌리산업은 융접, 소성가공, 금형, 주조,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서 완제품이 되기까지 제조업의 성장 관 역할을 하는 기초산업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첨단 뿌리기업 집중육성, 뿌리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현상 애로기술

해소,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 확대, 자동화·첨단화를 통한 인력 고도화 추진 등이 다.

분야별로 소성가공과 표면처리는 2018년까지 25억원을 투입, 핵심 제조기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세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융접은 내년 상반기 중에 첨단지구 생산 기술연구원 부지에 전체면적 1000㎡ 규모의 ‘융접·접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장비 38종을 도입해 뿌리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형분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5억원을 투입해 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와 3차원 금형 설계지원센터를 건립, 지역 영세 금형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주조 및 열처리는 2018년까지 통합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7일 “3D금형설계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금형업체의 영세성과 기술력 부족에 따른 수출예외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수 기능인 예우 합니다”

광주시, 기술장 제도 보완

광주시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기술장 선정 제도를 손질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해온 기술장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기술장 제도는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영예 제고를 위한 제도지만, 인센티브가 미흡해 선발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기술장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장려금 인상 등 기술장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선발요건은 관내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능인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장려금은 월 15만원씩 3년간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50만원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선정된 기술장에게는 소속 업체 사내규정에 따라 승급, 가점, 포상금, 국내외 교육연수, 인사사고와 방위, 사내강사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1993년부터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올해까지 모두 114명을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의정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